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대학석사학위논문

‘떠나가 보기’의 심리를 통한 현대인들의 내적변화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동양화전공

남재현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한 본인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심리적 갈등'을 자연을 통해 치유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이론적 근거, 조형적 특성과 표현방법을 연구하고 후속 작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작품연구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본인과 현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환경을 분석하고 도시로부터 받은 영향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영향이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거대화된 도시의 공간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파악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현대인들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해결방안은 자연이다. 사람들에게 자연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언제부터 동양에서 자연이 중시되어 왔는지 탐구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가미되어 개인들의 공간 안에 자연을 담아봄으로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공간과 주변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의 이상향과 같은 곳으로 떠남으로서 심리적인 불안과 고독에 대한 해소를 작품에서 다양하게 시각화하고 그 결과물들을 통해 나타는 조형적 특징과 표현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태도를 '떠나가 보기'라고 정의하고 문제 해결의 결과물을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Ⅰ장에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 설명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책을 자연에서 찾

고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Ⅱ장에서는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가지게 된 도시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서양, 동양, 한국의 도시형성과정을 나누어 알아보고 발전과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고 있다.

산업화를 통해 거대화된 도시는 계획적이고 인공적인 성격이 강한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황폐와 소외를 느끼게 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의 현대인들은 고독, 불안, 자아의 상실 등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심리적 갈등'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예고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먼저 현대인들이 '심리적 갈등'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시각화해 보고 다음으로 현대인들이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와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심리적 갈등'을 이상적인 내용을 포함한 자연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과정을 '떠나가 보기'라 정의하고 이를 통한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태도에 의해 변화된 심리를 작업에서 어떻게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향을 시각언어로 풀어 본 '떠나가 보기'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보고 그곳으로 가봄으로서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Ⅴ장에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고 본인의 생각을 시각언어로 표현하여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글을 끝마치고 있다.

논문을 마무리하며 시간적 흐름 속에 변화하는 작품들을 통해 본인의 현대사회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알아보고 현대사회를 대하는 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논문을 통해 이론적, 학술적 기반을 두고 객관적으로 작업을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현대사회를 바라보

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주제를 향해 진행되어져 옴을 알 수 있었고 본인의 작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앞으로 진행될 작업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v
작품목록 ····· vi
도판목록 ····· viii
Ⅰ. 머리말 ····· 1

Ⅱ. 도시 형성에 따른 현대인의 심리적 변화 ····· 4
1. 도시의 형성과 사회구조변화 ····· 5
2. 도시 속 현대인의 '심리적 갈등' ····· 7

Ⅲ. 현대인의 '심리적 갈등' 해소 과정의 표현 ····· 11
1. 현대사회의 벽을 만나다 ····· 13
1) 현대사회 속 자아형성과 조형 표현
2) 큰 조직에 갇혀진 자아
2. 벽 허물기 ····· 21
1) 개인 공간 안에 '자연 담기'
2) 떠나기 위한 준비, '자연 싣기'

Ⅳ. '떠나가 보기'의 표현 ····· 30
1. 이상향으로 '떠나가 보기' ····· 30
1) 산수로 '떠나가 보기'
2) 나만의 이상향에서 머물기
2. 이상향과 현대사회의 관계 표현 ····· 38

Ⅴ. 맺음말 ····· 43

작품도판 ····· 45
참고문헌 ····· 61
ABSTRACT ····· 63

주요어 : 심리적 갈등, 자연 담기, 자연 싣기, 떠나가 보기, 머물러 보기
학 번 : 2009-23305

작 품 목 록

【작품 1】 벽을 만나다, 72 x 90cm, 장지에 채색, 2008
【작품 2】 Line, 162 x 130cm, 장지에 목탄·먹, 2008
【작품 3】 Line Ⅱ, 130 x 324cm, 장지에 목탄·먹, 2008
【작품 4】 흔적, 구 1.5m 광목 20m, 노끈·광목·먹, 2008
【작품 5】 창문 속 하늘, 117 x 91cm, 장지에 채색, 2009
【작품 6】 건물 속 하늘, 145 x 112cm, 장지에 채색, 2009
【작품 7】 하늘을 가두다, 45 x 53cm, 장지에 채색, 2009
【작품 8】 창문 속 자연Ⅰ,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9】 창문 속 자연Ⅱ,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10】 창문 속 자연Ⅲ,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11】 창문 속 얼룩말,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12】 창문 속 기린,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13】 집에서 핀 구름, 60 x 6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14】 자동차 속 기린, 60 x 6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15】 빨간 차 속 기린,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16】 떠나는 기린, 20 x 2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17】 떠나는 펭귄, 20 x 2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18】 떠남Ⅲ, 117 x 72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19】 떠남Ⅰ, 162 x 9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0】 떠남Ⅱ, 162 x 9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1】 가치 있는 삶?, 40 x 2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2】 하늘에서 날다, 145 x 112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23】 하늘에 올라 생각하기, 162 x 13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4】 하늘에 그린 산수, 91 x 61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25】 하늘에 산수를 그리다, 60 x 4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6】 달로 향한 이들, 117 x 91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7】 앉아서 떠나보기, 60 x 4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8】 앉아서 보내기, 30 x 3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9】 누워서 떠나기, 30 x 3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30】 기억의 여행 떠나기, 91 x 61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31】 기억 여행, 40 x 2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32】 떠나보기, 40 x 40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33】 달로 향한 이들Ⅱ, 60 x 40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34】 떠나가 보기, 30 x 30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35】 하늘에서 놀기, 30 x 3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36】 산수에서 놀기, 40 x 40cm, 장지에 채색, 2015

도 판 목 록

[도판 1] 【작품 7】 부분 ····· 14
[도판 2] 제웅 ····· 14
[도판 3] 【작품 6】 부분 ····· 16
[도판 4] 【작품 1】 부분 ····· 16
[도판 5] 에드바르트 뭉크, 절규, 1893, 오슬로국립미술관····· 16
[도판 6] 【작품 1】 ····· 17
[도판 7] 【작품 2】 ····· 18
[도판 8] 【작품 4】 ····· 19
[도판 9] 【작품 3】 ····· 20
[도판 10] 【작품 8】 ····· 25
[도판 11] 【작품 10】 ····· 25
[도판 12] 【작품 13】 ····· 26
[도판 13] 【작품 14】 ·····28
[도판 14] 【작품 15】 【작품 16】 【작품 17】 ····· 28
[도판 15] 겸제정선, 백악산, 간송미술관 ·····33
[도판 16] 【작품 36】 ····· 33
[도판 17] 【작품 24】 ····· 34
[도판 18] 겸제정선, 장안연우, 간송미술관 ····· 35
[도판 19] 【작품 23】 ····· 35
[도판 20] 【작품 33】 ····· 36
[도판 21] 【작품 30】 ····· 36
[도판 22] 【작품 28】 ····· 37
[도판 23] 【작품 29】 ····· 37
[도판 24] 【작품 25】 ····· 39
[도판 25] 【작품 35】 ····· 39

[도판 26] 【작품 31】 ····· 40
[도판 27] 【작품 22】 ····· 41

Ⅰ. 머리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생활환경적으로 보자면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정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 조금씩 더 넓은 사회인 유치원, 학교 등을 거쳐 직장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사회는 개인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이나 역사적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는 상호관계에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개인들 중에 한명인 예술가는 예술언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이때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받은 영향은 예술언어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나오게 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습이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이라든지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의 여러 가지의 배경들이 예술가에게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예술가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그 관계의 모습을 예술언어로 그려낸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연구를 시작하려한다.

본인은 예술언어로 표현한 본인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에서 받은 영향을 어떻게 예술적 언어로 표현하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살아온 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인과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도시라는 공간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도시는 짧은 시간동안 산업화를 거쳐 현대화되면서 발생한 곳으로 경제 발전 위주의 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자연이 축소되고 인공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발전되어져 왔다.

이처럼 발달한 현대사회의 도시생활은 점점 조직화, 거대화되어 가고 있고 거대한 조직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역할을 점점 더 작아짐에 따라 개인의 존재 가치가 점점 미약해져 가고 있다. 또한 경제성과 신속성을 강

조하는 경쟁사회에서 현대인은 늘 바쁘고 여유가 없이 일에만 쫓기며 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정신적인 여유나 휴식을 가질 시간적 여유를 찾기가 어렵게 됐다.

도시화와 함께 발달한 현대사회의 특징인 자본주의에서는 물질적 가치가 강조되고, 정신적 가치는 경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 만남은 상대적으로 경시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물질적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되었다.

산업화를 통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통신기술의 발달로 연결망이 빨라지고 확대되어 휴대폰,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사람 간의 접촉의 양을 증가시켰지만 접촉의 질은 떨어지게 됐다. 그로 인해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인간 소외, 단절감, 고독감 등의 여러 가지 내적갈등을 갖게 되었다.

본인은 산업화로 인해 자연 환경과 멀어진 도시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 도시인들의 심리적인 모습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현대인들에게 자연을 통해 정서적으로 순화하여 '심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하려 하였다.

'심리적 갈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공간 안에 자연을 담음으로서 현대인들의 이상향으로서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보았다. 이는 자연이라 매체를 통해 현대인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연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공간이 현대인의 삭막해진 삶의 터전을 치유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현실 공간 안에 이상적 의미를 갖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담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와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조형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총 5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Ⅰ장에서는 작품창작의 동기를 서술하면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전개될 연구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Ⅱ장에서는 도시의 형성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형성과정에 생긴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불안정한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의 심리상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갈등’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와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다양한 방향에서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작품의 내용을 뒷받침해 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심리적 갈등’ 해소의 적극적인 태도, 이상적 자연을 사용하여 시각언어로 풀어 본 ‘떠나가 보기’를 통해 심리적 변화를 작업에서 어떻게 표현하여 형상화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새로운 공간, 이상향과 같은 공간에서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자연과 함께 살아갈 현대인들의 모습과 본인의 생각을 시각언어로 표현하여 현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의 의의를 다시 언급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며 글을 끝마치려 한다.

본 논문은 현대에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자연의 소중함을 형상화하여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인식과 문제해결 과정의 작업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메시지들이 담긴 여러 가지 이론과 표현 방법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과 본인에게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Ⅱ. 도시 형성에 따른 현대인의 심리적 변화

도시의 많은 인구들은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대부분 생활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는 서구화된 주거환경으로 규격화, 기능화한 서양의 주거환경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이고 효율성만을 고려한 생활공간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공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그것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1)]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역사나 형성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생활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본인 또한 도시에서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긴 공간에서 같은 모습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아침풍경을 보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그 화면에 모든 집중을 하며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스마트폰만 볼 뿐이지 주위의 자연환경이나 사람들을 인식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이러한 풍경은 현대사회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인간으로서 필요한 요소를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빼앗기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인간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어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이처럼 도시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Ⅱ장에서는 도시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형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불안정한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의 심리상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뒤로는 도시생활로부터 받은 '심리적 갈등'을 이상적 의미를 가진 자연 통해 극복해가는 모습에 대

1)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1972, p.9.

해 논의해보겠다.

1. 도시의 형성과 사회구조변화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의 정의를 보자면 사회가 현대화, 산업화 되면서 형성된 공간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산업적 활동의 중심지인 동시에 정치행정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라고 정의 할 수 있다.[2] 하지만 단시간에 발전한 도시의 모습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기 보다는 경제적 발전이 우선시 되어져 왔으며, 그 결과 도시는 자연과 괴리감을 가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도시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서양과 동양의 도시발달과정을 나누어서 알아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다.

도시라는 형태의 모습은 동양보다 서양에서 먼저 등장하였고 서양의 도시는 동양의 도시 발달모습과는 다르게 발전하였다. 동양의 도시모습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발달 과정은 다른 동양의 도시와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지리적인 특성뿐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서구에서는 생산력이 거의 없었던 원시 사회를 벗어나 정착 생활을 통해 농경시대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로인해 생산력의 증가를 보인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토기를 만들어 식량의 저장이 가능해졌고 지배계급이 생기게 되면서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 시설, 종교 시설 같은 것을 형성하여 된 것이 도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2) 서정화, 『都市問題概說』, 문왕사, 1971, p.11.

때의 도시는 현재 이야기하는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18세기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를 통해 계속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화사회의 도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서구사회는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3)]

산업화와 함께 자본주의도 같은 시기에 발달하게 되어 신흥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이 도시 생활의 주체가 되었다. 도시의 규모는 확대되었고, 인구의 증가와 주택문제가 심화, 농촌지역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가속화되었다. 인구의 성장에 비례하여 적절한 시설 및 주택의 공급은 불가능했다. 그럼으로 도시는 과밀화하고 슬럼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도시의 문제점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세기를 지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대도시의 모습은 19세기 말 이후에나 볼 수 있게 된다. 국가 독점자본의 조성과 생산력의 증대 그리고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거대 도시가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에 의해 형성된 산업도시의 몸집은 거대해졌지만 그 속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개인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되었다.

서구의 도시들이 산업화로 발전해 나갈 때 동양의 도시들은 다른 발전과정을 겪게 된다. 근대의 동양 도시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건설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기간 동안 전시동원과 교통·통신 기관의 발달, 농산물 가격의 인상, 전후의 독립 및 공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경제성장은 근대화와 함께 빠르게 도시화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의 현대도시형성과정을 보기위해 현대로 접어들기 전, 근대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다른 동양의 도시들처럼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개항 이후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급속한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도시는 앞서 언급한 서양의 도시와는 형성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오직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근대 문명의 건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의 모습에는 자연이 점점 줄어들었고 점점 소홀하

3) 손세관, 앞의 책, p.224.

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산업화를 거쳐 발달한 서양 도시와 선진국에 의해 발달한 동양의 도시에서는 6,70년대가 되면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0년대에 겪은 6.25한국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파괴되고, 삶은 그전보다 더욱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6,70년대에도 다른 나라와 다르게 환경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개발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4)]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대도시 과정은 서양과 같은 산업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국에 의해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 하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기 시작하였다.

도시는 그 외양을 언뜻 보았을 때에는 화려하고 번듯하지만, 발달과정에서부터 이미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공간임을 발달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성장과정에서 자연 친화적인 면이나 인간 중심 적인 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제적 향상을 위한 발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계획적, 인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도시 문제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도시 속 현대인의 ‘심리적 갈등’

앞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도시의 발달과정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

4) 김승범, 「전원주택에 나타난 한국현대도시인의 자연에 대한 욕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학위논문, 2003, pp.25-28.

다. 이러한 도시의 성격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반응도 금방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생활환경에 놓여있는 현대인들을 더욱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현대인들의 모습과 관심사를 쉽게 볼 수 있는 뉴스나 잡지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의 관심사를 통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얼마 전까지 쉽게 접하던 웰빙(Well-being)[5]이라는 단어와 최근에 가장 많이 접한 힐링(Healing)[6]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현대인들이 현대사회를 대하는 태도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 생각했고 이 단어들이 어디부터 시작되어 유행하게 된 것인지 연구해보기로 했다.

위의 언급한 두 단어는 삶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현대인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에 반대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치유를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의 요소가 왜 현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위해서 현대사회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 이해해 보겠다.

산업화를 통해 도시화, 산업화를 이루어낸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대중사회(mass society)이다.[7] 대중사회의 발달과정과 특징을 보면

---

5) 웰빙(Well-Being)이란 단어는 1948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개최한 건강관련국제회의에서 건강의 정의를 “질병이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사용함.(참고: 김훈철, 웰빙마케팅, 컴온북스, 2004, p.12.)

6) 힐링(Healing)은 치료하고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를 치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도덕적·환경적 건강상태를 치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각종 범죄와 질병, 환경파괴, 공해 등의 재건을 위한 손실을 막는 경제적 건강상태를 치료하고 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참고: 이연숙, 『힐링콘텐츠의 정의 및 개념』, 한국디자인 포럼 제 17호, 2007, p.305.)

7) 임춘식,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0, pp.15-18.

18세기 중엽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화가 시작되고 19세기에 들어 그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가내 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던 생산양식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자연히 노동과 자본이 분리되어 수많은 임금노동자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층을 대중이라고 한다. 대중이라는 집단은 다수가 되어 사회의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대중이라는 광범한 의미의 사회계층이 탄생하고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중사회로 변해간다.

기계공업의 발달은 재화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과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서 그전까지의 자급자족적 생산이나 주문생산으로부터 대량생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량생산, 대량분배, 대량소비의 대중경제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발달은 교통통신의 발달도 가지고 오게 된다. 인쇄 및 제지기술 역시 획기적으로 발달하여 다원화된 사회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게 되자 정보의 대량전달체계로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등 대중매체가 급속하게 신장 보급되어 이른바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의 시대가 된다.[8)]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매스 미디어(mass media)에 의해서 표준적이고 몰개성적인 보편적 문화를 형성함에 주체성을 상실한 현대인은 실존적 결단도 상실하게 되어 자기를 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산업화, 도시화, 인구이동 등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에서 오는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에 대해, 종래 지배층이 주로 누리던 권력과 고급문화가 대중의 손에 넘어가서 무분별하고 저속하게 되어 간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전통적인 사회관계가 약화되면서 해방된 개인들이 오히려 고립감과 소외감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9)]

현대사회의 고립되고 소외된 인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인간 등은 바로 전체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파악한 대중의 특성이라 하겠다. 대중사회

---

8) 임춘식, 앞의 책, p20.

9) 박승위,『현대사회와 인간소외』,인문연구 제13권 제2호, 1990, pp.211-244

가 등장하고 사회의 구조가 바뀌면서 사회 조직이 거대해지고 그 안의 개인들은 일체감을 상실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대사회의 매우 큰 조직이나 매스컴, 기계 등은 본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편리하게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조직이나 매스컴, 기계에 의해 조정·지배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소외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인간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는 속도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속도보다 느리고 또 현대 생활에 따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을 잃고, 불안과 고독,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를 통한 대중사회의 발생이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켜 인간의 소외와 고독을 야기 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Ⅲ. 현대인의 '심리적 갈등' 해소 과정의 표현

앞장에서 보듯이 현대인들은 도시형성 과정 안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문제인식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운동이 얼마 전에 있었다.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슬로우 푸드(Slow Food)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Arcigola라는 작은 도시에서 1989년 맥도날드의 이탈리아 첫 개업에 반대하던 운동이다. 패스트푸드와 빠름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삶과, 사라지는 지역 특산물과 전통, 그리고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출처와 맛에 대한 관심이 가져온 운동이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천천히 먹자는 의미가 아니라 현대 기계 발전에 따른 질은 낮고 많은 양을 쏟아내는 음식문화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다. 대중사회의 특징인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 대량전달을 통해 인간들이 쉽게 획일화·표준화되어 개성을 상실하는 현상과 맥락이 같다.[10]

이는 산업화를 통해 대중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구조가 변하면서 겪었던 대중사회의 특징과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슬로우 푸드 운동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의 일부분이지만 마치 대중사회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현대사회의 거대한 조직이나 매스컴, 기계 등에 의해 조정·지배당하고 있는데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의 거대한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맥도날드에 의해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입맛을 강요당하고 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맛을 위한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대중사회에서

10) 임춘식, 앞의책, pp.15-16.

중시되는 개인들이 오히려 커다란 조직 안에서 개성을 상실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되며 조직에서 소원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인식한 뒤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의 인식이라는 시기를 거쳐 문제의 해결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작업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현대사회가 진행되는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작업과정의 시기는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 번째 시기는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식보다는 문제에 대한 발견과 인식에 의미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시작단계의 시기이다. 이때의 시도는 완성되지 않은 소극적인 문제해결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떠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자신이 있는 공간 안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채워 넣음으로서 새로운 공간으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마지막 시기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는 시기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으로 떠나거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장의 1절은 작업의 첫 시기에 해당되며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식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단순히 사회문제를 형상화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2절에서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한 뒤 그것에 대처하는 현대인들의 자세와 표현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 시기의 작품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1. 현대사회의 벽을 만나다

1) 현대사회 속 자아형성과 조형 표현

예부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일컬어 왔다. 이는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아직 미완성의 결핍된 존재로서 태어나는 인간은 사회 안에서의 문화적인 공동생활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룩하면서 자기완성을 도모하며 살게 되어 있다. 인간의 문화적인 자기완성과 삶은 언제나 사회집단, 즉 가정·사회·국가 등의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그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은 사회 안에서만 혹은 사회와 더불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사회를 떠난 인간이란 개념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11]

이처럼 인간과 인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개인이 속한 사회라든지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은 무엇을 위해 단순히 줄을 서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다시 말해 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의미를 인간간의 연결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인간과 인간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있으며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줄 또는 끈의 의미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길이를 가진 물체로 묶거나 꿰거나 하는데 쓰는 물건을 나타낸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줄은 연결, 묶다, 풀다 등의 의미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연결, 묶다, 풀다의 개념을 단순한 동작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관계성의

---

11) 이무웅·우영제, 『정보사회와 인간관계론』, 1994, pp.132-133.

[도판1]【작품 7】 하늘을 가두다 (부분)

[도판2] 제웅

형성과 해체에 대입 시킨 것이다. [도판1]에서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의미를 가진 줄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인형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과거의 제웅[12]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웅은 한 개인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만들어졌다면 [도판1]의 인형은 단순히 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이라는 의미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된 사회 속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혼자서 형성된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사회 속의 자아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인형은 과거부터 인간의 모습을 대신해왔다. 인형은 문화의 시작과 함

12) 볏짚과 풀 등으로 사람의 형상을 제작하여 마을제의가 끝날 무렵에 불에 태우거나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내는 액막이형 제의도구이자 신체. (참고: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편, 2009)

께 종교적, 주술적인 목적으로 존재해왔고 인간을 대신하여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역병, 재화 등을 막기 위해 만든 신앙적 인형은 세계각지에 존재해 왔다. 사람의 생김새를 본떠서 만들었다하여 사람 人. 형상 形자를 써서 '인형'이라 하는데, 인형의 기원은 인류역사와 같이 출발하여 발생장소도 인간이 존재한 곳이면 어디에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에서부터 민간신앙의 대상물로, 귀인의 부장품으로,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인형은 인간의 옆자리에 항상 존재해 왔다. 종교적,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을 만든 것이 초기 인형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의 형태를 가진 모습을 하고 줄이라는 요소를 이용하여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진 자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자아는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단지 그러한 문제를 몸으로 받아들이며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2) 큰 조직에 갇혀진 자아

이렇게 형성된 자아는 산업화를 통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간다. 현대사회의 인류문명은 발전하였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상실감과 몰락의 느낌을 갖게 만드는 현대사회와 문화의 특징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13] 겉으로는 화려한 현대사회의 거대한 조직 안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마음의 고독 속에 갇히는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현대인들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내용은 Ⅱ장에서 대중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언급했었고 거기서 파생된 소외감과 고독감에 대해서도 설명했었다.

[도판3], [도판4]은 대중사회의 거대한 조직을 형상화 하고 있다. 거대하고 많은 양의 벽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중사회의 거대한 조직을 시각화하고 있다. 이는 거대조직에 비해 자신의 존재가 더욱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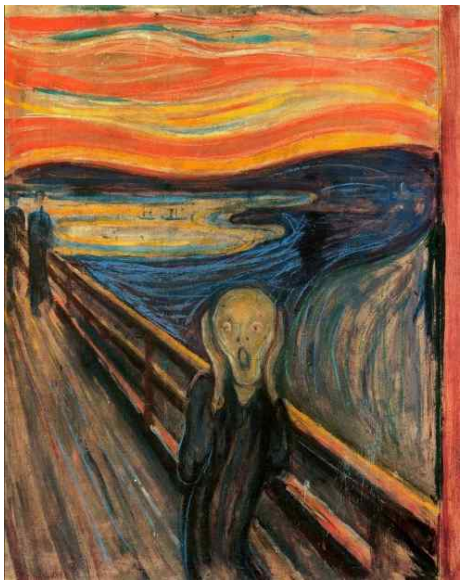
---

13) Charles Taylor, 『불안한 현대 사회』, 이학사, 2001, p.9.

[도판3]【작품 6】 건물 속 하늘 (부분)

[도판4]【작품 1】 벽을 만나다 (부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기서 표현된 자아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에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나만의 감정으로 받아들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도판5]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절규, 1893, 오슬로 국립미술관

이러한 방식은 [도판5]의 절규를 그린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뭉크는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그 당시의 느낌

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한순간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의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도판6]【작품 1】 벽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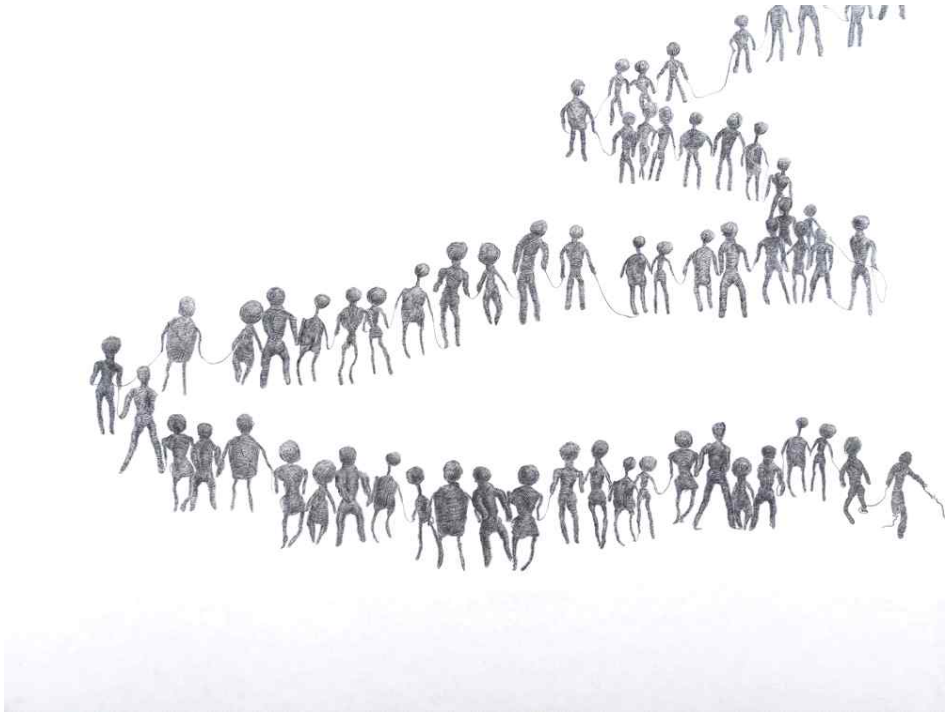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회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도판6]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자아도 살아온 환경과 경험을 토대로 감정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판6]의 자아는 거대한 조직을 만나 대중사회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고독감을 자신의 경험을 통한 감정으로 보여주고 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그 조직의 벽에 갇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 한 것이다.

한 개인을 표현하기 위해 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인형으로 표현하였고 그 인형이 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벽이라는 것으로 표현해보았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소외받는 느낌을 인형의 형상을 통해 그대로 표현해 보았다.

앞서 이야기한 작품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의 인간과 사회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구별하여 본다면, 개인 대 개인 관계, 집단 대 집단의 관계 등으로 볼 수가 있다. 여기서 개인에 대한 사회의 관계는 구속과 보호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하면 사회는 개인에 대하여 그 행동을 구속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의 복리를 도모한다.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계는 구속의 관계에 더 가까울 것이다.[14]

본인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대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자아 혹은 현대사회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하려 하였다. 그리고 사회 속 자아의 발견을 통해 더 큰 사회를 보고 그 사회의 특징을 찾아보고 표현해 보았다. 이는 아직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기위한 준비단계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도판7]【작품 2】 Line

14) 이무웅· 우영제, 앞의 책, pp.133-135.

개인 대 집단의 관계의 표현을 더 확장시켜 시각화 해보았다. [도판7]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한 줄로 다 연결이 되어져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개성이 없고 무기력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일률적인 정보와 지식에 의해 개성이 없고 획일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눈, 코, 입과 같은 특징 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단지 부피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도판8]【작품 4】 흔적

[도판8]에서는 거대 조직을 형상화한 커다란 구가 나온다. 그리고 그 거대한 조직위에 우리는 모습을 들어 내지 못한 체 구에 묶여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 조직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단지 그 조직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그리고 큰 조직을 형상화한 큰 구 아래로는 구가 지나간 흔적을 남기면서 지나간다. 하지만 그 흔적은 커다란 흐름만 있을 뿐 특별한 형태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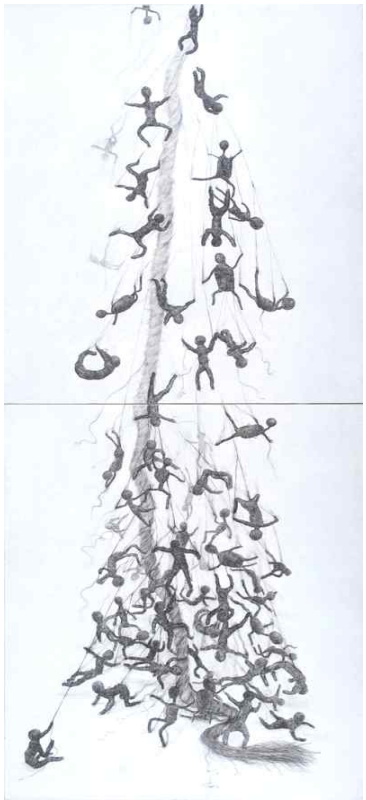
두 도판의 모습처럼 현대사회의 특징인 대중사회의 한 모습을 형상화해 보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짚어보았다.

위의 작품들은 현대인들의 사회 속 인간관계의 부분에 초점을 맞춰 형

상화했다면 이번 작품은 대중사회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형상화해보았다.

대중사회의 특징 중에서 매스 미디어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매스 미디어의 발달 과정을 보자면 교통·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인쇄 및 제지기술이 발달하여 다원화된 사회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게 되자 정보의 대량전달체계로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표준적이고 개성이 파괴된 보편적 문화를 형성함에 주체성을 잃고 획일화 된 모습과 태도를 보이게 된다.



[도판9] 【작품 3】 Line Ⅱ

[도판9]에서 보면 가운데 굵은 줄이 보인다. 이는 현대사회의 많은 정보를 주는 매스 미디어와 같은 역할은 한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사

람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정보를 활용하기보다는 그 정보에 지배를 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정보 안에서 고립되어 소외되어져 간다. 인형 하나하나가 주체적인 움직임을 가지기 보다는 커다란 흐름에 걸려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주체성을 잃고 획일화된 현대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화를 통해 형성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이나 현대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보았다. 이는 현재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감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2. 벽 허물기

1절에서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시각화해보았다. 그리고 이번 절에서는 현대사회의 문제인식에서 머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볼 것이다.

앞서 도시발달과정의 특징 중 자연과 친화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현대인들은 자연과 함께하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 안에서 화단을 가꾸기도 하고, 어항을 기르기도 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는 자연을 통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생활 속에서 얻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고 재충전 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하려는 모습은 과거부터 현대까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에서 얻고자 한 것을 알아보겠다.

고대의 도가사상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살펴보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함으로써 저절로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법칙을 벗어나 자신의 목적을 애써 추구하지 않아도 일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15] 이는 자연과 함께 한다면 자신의 목적을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다는 뜻

이다.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25장(章)[16]을 보면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고 나오는데 사람은 땅을 본보기로 삼고, 땅은 하늘을 본보기로 삼고, 하늘은 도를 본보기로 삼고, 도는 자연을 본보기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는 도를 우주만물의 근원이라고 보고 자연이 그것의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사람 또한 자연을 통해 우주만물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자연을 본보기로 삼고 나아가야한다고 하였다.

장자는 무위자연의 노자사상을 계승하였는데 인간의 목표가 지인(至人)이 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면 인생의 원칙은 자연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자연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승으로 삼아야 할 인간 행위의 원칙이라고 하였다.[17]

이처럼 과거에서도 자연을 완성된 존재로 여겨 가까이 두고 이를 통해 인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자연을 통해 현대인들의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한다.

도시의 발달과정에서 보여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에 의한 인위적인 성격을 가진 도시의 공간을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 현대인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절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통해 문제해결의 과정을 이야기해보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겠다. 이러한 과정은 앞의 문제인식의 과정에서 발전된 문제해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개인 공간 안에 ‘자연 담기’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이라는 개인적인 공

15) 지순임,『예술과 자연』, 도서출판 미술문화, 1997, p.199.

16) 老子,『道德經』,「第二十五章」,“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而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强爲之名曰大.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故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17) 이강수,『도가사상의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5, p.202.

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집이라는 공간일 것이다. 흔히들 집을 일컬어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18] 이처럼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의 집이라는 공간은 도시발전단계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인간친화적이지 못하고 인위적인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인위적인 공간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하여 집안에 자연물을 끌어오는 행동을 '자연 담기'라고 정의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자연담기'를 통해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보겠다.

여기서 사용되는 자연의 의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과거 전통적으로 자연(自然)은 천지만물의 끊임없는 생성변화에 대한 상태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써 '스스로 그러함',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밖에도 천지만물과 인간의 도덕적 지향점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개념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자의 도덕경에서 도를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본질로서, 절대적 실체로 인식하고 도가 자연을 본보기 삼고 자연은 도의 절대적 존재라고 인식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전통 고전에서 자연이라는 말은 현대적 의미의 '자연(nature)'이라는 개념과는 합치하지 않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자연이라는 개념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해당하는 개념을 추출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용되는 자연의 의미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과학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용어라는 의미를 사용하되, 이것은 서양의 정태적 자연관에 대해 생성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양의 동태적 자연의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도시발달 과정에서 생긴 인위적인 요소를 왜 자연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가의 답은 장자(莊子)의 이야기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

18) 허석, 『집』, 서울출판사, 1992, p.6.

다.

소나 말에게는 네 발이 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말의 목에 굴레를 씌우거나 소의 코를 뚫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위로써 자연을 없애지 말고, 일부로 천성을 없애지 말며, 이익을 위해서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을 가리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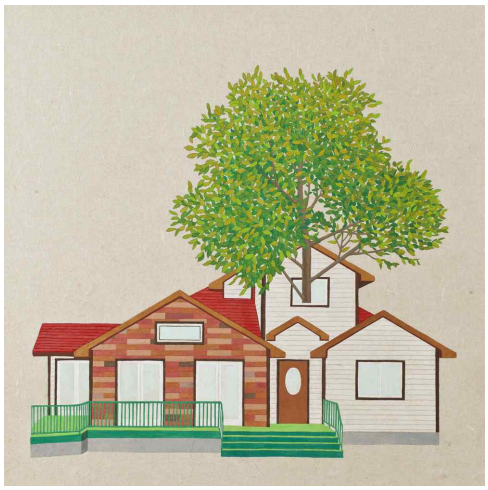
이 인용문에서는 천(天)을 자연으로 번역하였다. 장자가 말한 천(天)은 인위와 반대되는 자연의 개념일 것이다. 천은 자연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인위적인 작용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소나 말이 생긴 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자연이라 말하고 소에다가 사람들이 굴레를 씌우거나 코를 뚫어 코뚜레를 꿰는 일을 인위라 할 수 있다. 소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인데 거기다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떼어내거나 첨가하는 행위는 본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동인 것이다. 소의 코를 뚫는 일은 소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의 본성을 실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고치려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보듯이 과거의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터전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를 통해 삶의 터전이 도시라는 공간으로 옮겨지게 된다. 도시라는 공간은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 자연친화적이지도 않고 친인간적이지도 않은 공간으로 발전되어져 왔고 부의 축적을 위하여 많은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살아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

19) 莊子,「秋水扁」,"何謂天, 何謂人. 北海若曰, 牛馬四足, 是謂天. 落馬首, 穿牛鼻, 是謂人. 故曰, 無以人滅天, 無以故滅命, 無以得殉名. 謹守而勿失, 是謂反其眞."(참고: 안종수,『동양의 자연관』, 한국학술정보, 2006, p.228.)



[도판10]【작품 8】 창문 속 자연

[도판11]【작품 10】 창문 속 자연Ⅲ

[도판10]과 [도판11]을 보면 이상적 자연의 상징물 식물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도판12]에서는 식물의 이미지 뿐만아니라 동물의 이미지도 담고 있다. 이 역시 이상적인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놓치고 살아온 자연의 혜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장 밀접한 공간인 집으로 끌고 옴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느꼈던 심리적 갈등을 자연을 통해서 해소해보는 시도이다. 즉, '자연 담기'를 해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실제 집안 생활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가정집의 안을 들여다보면 화분을 키우는 또는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시가 발전해오면서 놓치고 살아왔던 자연이라는 부분을 최소한이라도 삶의 공간 안으로 들여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자연을 취하는 모습의 의미는 앞서 과거의 동양의 자연관을 통해 의미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연을 취하는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태도를 소극적인 문제해결 태도라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실세계에서 아직 벗어나기 못한 채 진행되는 부분적인 해결방안이기 때문이다.

[도판12]【작품 13】 집에서 핀 구름

2) 떠나기 위한 준비, '자연 심기'

『논어(論語)』「선진편(先進篇)」을 읽어보면 동양의 자연관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각자의 포부를 말해 보라고 한다. 먼저 자로(子路)는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려 보고 싶다고 했고, 염유(冉有)는 사방이 육칠십리 쯤 되는 작은 나라를 다스려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공서화(公西華)도 제후(諸侯)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도 현실의 문제에 둘러싸여 자신의 생활 안에 현실의 문제만 가득 채워 넣었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이다.

하지만 그중에 증석(曾晳)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늦은 봄에 봄옷을 지어 입고 어른 대여섯 명과 아이들 육칠 명을 데리고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면서 시나 읊으며

돌아오는 것입니다."[20]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을 들은 공자는 감탄하면서 자신의 뜻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였다.

공자는 세속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자연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는 여유 있는 생활에 대한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증석은 자신의 공간에 자연을 채워 넣음으로서 자신과 자연을 일치시키고 그것을 즐길 줄 알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증석의 말은 공자의 생각과도 같고 동양인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자연을 대상화하기보다는 일체가 되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모습이다.[21] 이는 자연과 일치되어 자연을 즐길 줄 아는 태도로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문제해결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자연을 즐기기 위한 준비단계를 '자연 싣기'라고 하겠다.

이처럼 자연과 일체되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현대인들이 캠핑을 가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캠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사람들이 캠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자연으로 떠나 그 속에서 자연을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캠핑장에 도착하여 자연을 즐기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의 마음가짐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캠핑용품을 준비 할 때이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캠핑을 하는 행위보다 캠핑을 준비하는 행위에 더욱 의미를 두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자연을 즐기기 위한 최적의 상태를 가지기 위한 준비행동일 것이다.

[도판11]에서 보면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의 장소에 도착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 곳에 도착하여 자연을

---

20) 『論語』「先進篇」, "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21) 안종수, 앞의 책, 2006, p.137

[도판13]【작품 14】 자동차 속 기린

즐길 준비는 모두 완성해 놓은 상태인 것이다. 차 안에 들어 있는 자연은 현대인들이 상상했던 공간이나 장소에 넣어줄 자연을 뜻한다. 다시 말해 차안의 자연물들은 이상향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연을 꾸밀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인 것이다. 앞서 설명한 캠핑도구를 챙기면서 이미 마음은 캠핑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상향에 대한 공경은 있으나 아직 이상향의 공간을 창조하지는 못한 상태로 바라보면 된다.

[도판14]【작품 15】,【작품 16】,【작품 17】

[도판13]외에 [도판14]에서 보면 여러 작품 속에서 자동차, 버스의 운송수단이 등장하게 된다. 운송수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다. 이처럼 운송수단이라는 것은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지점까지 연결을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본인 작품 속 운송수단들도 마찬가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이상향이라는 도착점으로 가기위한 연결고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개체 안에 도착지점에서 보기를 기대하는 것들을 실어 보는 것이다. 이처럼 아직 이상향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이상향을 향한 마음을 운송수단에 담아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사회의 문제의 해결 태도로 자신의 공간 안에 자연을 담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상상의 공간 안을 채워 줄 자연들을 자동차에 실어도 보았다. 아직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상향을 가는 상상을 통해 우리는 이상향에 가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Ⅳ. ‘떠나가 보기’의 표현

현대인들은 도시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을 자연을 통해 느끼는 편안함으로 위로 받고자 한다. 하지만 도시 생활 속에서 자연을 두고 가까이 지내기는 현실상 쉽지가 않다.

앞장에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에 출발하여 ‘자연 담기’와 ‘자연 싣기’를 통해 문제해결의 시도를 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아직 적극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단지 자신의 주변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Ⅳ장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시도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곳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야기 해오던 이상향과 같은 상상의 공간이다. 이상적의 자연은 동양화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상향의 개념을 산수화를 통해 짚어 볼 수 있다. 이상향인 상상의 공간으로 떠나감으로서 현실의 불만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떠나가 보기’라고 정의했다.

Ⅳ장에서는 이상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설명되어져 왔는지 살펴보고 산수화를 통해 이상향의 모습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향의 모습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들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이상향으로 ‘떠나가 보기’

과거에는 이상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야기해왔는지 알아보겠다. 과거에도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 행복만이 가득한 곳 즉 이상향 또는

유토피아를 그리워하는 것은 시대나 특정 문화권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지속되어 왔다. 과거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상상했던 곳으로 감으로서 행복해 진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 사람들의 행동과 같이 이상향과 같은 공간을 창조하여 그 곳으로 가보는 것이다.

예전부터 이상향, 유토피아와 같은 단어는 많이 써왔다. 서양에서 이상향 곧 이상사회를 의미하는 말로는 코케인(Cockaygne), 아르카디아(Arcadia), 천년왕국(Milennium), 유토피아(Utopia)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중국 및 한국에서 이상향과 관련된 용어로는 옥야(沃野), 낙토(樂土), 동천복지(洞天福地), 선경(仙境), 승지(勝地)등이 있는데 대체로 비옥하고 평화로운 별천지를 의미한다.[22]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었다.

이상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상향은 물론 상상의 산물이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에서 출발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괴로운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환상의 공간으로, 때론 현실을 개선한 대안적인 세계로 나타난다.

이처럼 과거부터 우리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가는 상상을 해오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서처럼 현실에서 벗어나 상상하던 곳으로가 행복해진다는 이상향의 의미에서 현대사회를 벗어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여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이상향으로 떠나보았다.

1) 산수로 '떠나가 보기'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이상향을 그려온 작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산수화, 특히 관념산수화는 이상적인 자연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상

22) 국립중앙박물관,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그라픽네트, 2014, pp. i-ii.

강주변의 여덟 경치를 그린 소상팔경도와 같은 그림도 있다. 이 밖에도 이상경을 표현한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작품 속에서 거침없이 드러내고 이상적인 삶을 희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항상 현실에서 받은 '심리적 갈등'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여 그곳을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그곳이 우리의 행복의 종착점처럼 생각해왔다. 산수로 '떠나가 보기'는 이러한 과거의 이념을 탐구하여 현재에도 적용시켜 본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현실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것은 같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산수화일 것이다. 산수화(山水畵)란 산수자연을 표현한 동시에 인간 스스로가 자연을 보고 느낀 감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산수는 이상적인 자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산수화 자체가 이상향을 보여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산수화의 산수자연에는 산, 바위, 돌, 나무, 풀, 계곡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물체가 커 내용 또한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에 동양인들은 산수를 우주의 근본으로 생각하였고 인체처럼 살아 꿈틀대는 생명체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인간이 생동(生動)하는 가운데 비로소 인간적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산수화도 산수자연에 들어 있는 정신과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여 표현함으로써 산수자연을 진실하고 순수하게 깨닫는 것을 산수화의 목적으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산수화는 다른 회화 장르보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적 생각들을 다양하게 작품에 담아왔을 뿐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반영하면서 동양인의 미의식을 가장 잘 나타내왔다. 이러한 점에서 산수화는 동양인이 지니고 있는 자연관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예술적 표현으로서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23]

---

23)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一志社, 1991, pp.25-26.

[도판15] 겸제 정선, 백악산, 간송미술관

[도판16]【작품36】산수에서 놀기

한국의 산수화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약1392~약1550) 자연을 사랑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호연지기(浩然之氣)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안견이 곽희 산수화풍을 수용하였고, 조선중기(약1550~약1700)를 거쳐 후기(약1700~약1850)에 이르면 이 전통회화들이 한국 전통 정신을 담아 한국적인 산수화로 뿌리내려 겸재 정선(1676~1759)의 진경산수화와 같은 훌륭한 창의성이 돋보이는 한국적 양식의 산수화를 탄생시킨다.[24]

[도판15]의 작품에서는 과거의 겸제정선이 자신이 살고 있던 주변을 산수화로 그린 것이다. 이는 현실의 모습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담아 다시 재탄생 시킨 것이다.

현대의 본인 또한 서울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 백악산, 현재의 북악산을 보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려 볼 때 겸제의 생각이 아닌 본인의 기억이나 체험을 떠올리며 그려보았다.

이것은 아직 다른 형태의 산수화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리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산수로 들어가 보는 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된다.

24) 지순임, 앞의 책,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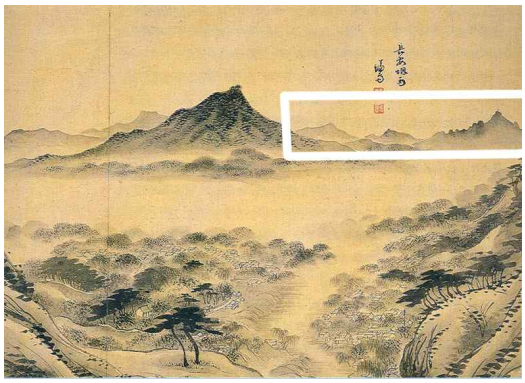
중국에서는 문인 종병(375~443)이 산수의 아름다움과 감상 작용을 중요시하고, 산수화를 보는 행동은 정신을 펼쳐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수화 자체의 효능을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의 명산을 두루 다니다가 늙고 병들게 되자 몸소 유람할 수 없어서 단지 산수화를 누워서 보며 마음을 맑게 하고 도를 보는 이른바 “와유”의 정신은 산수화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다. 산수 자체에 도덕성과 자연미가 부여되었고, 산수화의 심미 작용과 나아가 교육 기능까지 인정됨으로써 산수화 창작의 토대가 더욱 굳건하게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수의 물질적 속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산수미를 인식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성립함에 따라, 이후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는 ‘산수’가 그 자체로 높은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게 되었다.

[도판17]【작품 24】 하늘에 그린 산수

[도판17]에서 보면 앞에서 보여주던 문제해결 방법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먼저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전에는 현실의 공간 안에서 또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현실세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새롭게 상상하여 만들어낸 공간이 등장한다.

[도판19]에서 보면 [도판16]과는 달리 같은 산수를 보고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이상향을 창조하고 표현 할 때 이상적 자연에서 산수라



[도판18] 겸제정선, 장안연우, 간송미술관

[도판19]【작품 23】 하늘에 올라 생각하기(부분)

는 것을 차용하였지만 그전과 다르게 나만의 산수로 표현하였다.

현대인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 뒤로 현대인이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한 산수를 그려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현실의 되돌아보고 현실에서 벗어나 본다. 이는 더 이상 현실에 머물러있지 않고 이상적인 성격을 지닌 자연을 취함으로서 이상향에 도달하게 되는 시도이다. 과거 산수를 통해 이상향을 표현했던 선조와 같이 본인은 다른 방법으로 산수를 창조하고 산수를 표현함으로써 이상향에 도달해본 것이다.

2) 나만의 이상향에서 머물기

앞서 산수화를 통해 과거의 이상향의 모습에 국한 되어있던 이상향의 공간을 이번에는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 나만의 이상향으로 재창조해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이상적인 성격을 가진 자연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연에서 우리가 얻고자했던

것을 감정을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있다면 그곳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향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도판20]【작품 33】 달로 향한 이들Ⅱ

과거부터 자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빌어보는 행동을 많이 해보았을 것이다. 그중에 보름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에는 사람들이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 여기서 보름달이 의미하는 바는 크지 않다. 하지만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이 들어가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향과 같은 곳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달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공간처럼 인식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상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판21]【작품 30】 기억의 여행 떠나기

일반적인 자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의 이상향도 표현해 보았다. [도판21]에서는 시간에 따른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는 여행을 해보았다.

우리는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기억하고 그 순간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다시 느낄 수 있다. 사진 속의 행복했던 기억을 통해와 마치 내가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이상향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과 같이 현실에서 벗어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도 이상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을 통해 현대의 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을 자신의 공간 안에 담아보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떠나보는 등 많은 시도를 해보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곳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도판22]【작품 28】 앉아서 보내기

[도판23]【작품 29】 누워서 떠나기

[도판22], [도판23]에서 보면 자신이 원하는 공간 안에 도착하여 가만히 그 공간을 느끼며 앉아 있거나 누워있다. 이는 자연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자체로 이미 완성된 공간이 형성이 된 것이다. 이것은 동양의 자연관과 같은 맥락이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서양사상이 들어오고 나서

생긴 일이지 동양의 전통에서는 만물이라는 개념에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포함되어있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는 자연관에서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의 길과 자연의 길이 다르지 않다. 인간은 자연과 하나이고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의 섭리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도덕경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자연과 하나가 되어 그 속에서 살아감으로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대인들이 자연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을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2. 이상향과 현대사회의 조형적 표현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상향과 현대사회를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이야기해보겠다. 이상향을 그린 그림을 완성함 있어서 그림 자체가 가지는 기능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그림을 이상향으로 느낄 수 있는 시도를 해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심리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먼저 주로 사용되는 색채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다. 색채치료는 색채를 이용한 치료방법으로 인간의 신진대사 작용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것을 평가하는데 색을 사용하는 의료방법이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정신이 육체와 분리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정신병의학의 발달로 인해 색채치료의 가능성을 더해 주고 있다.[25]

본인의 작품에서 파란색의 배경이 많이 등장한다. 파란색은 생리적, 심

25) 사단법인 한국색채학회, 色色가지 세상, 도서출판국제, 2001, p.77.

리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파란색의 특징을 통해 사람들에게 안정된 느낌을 주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파란색의 진동광선은 신진대사를 증대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성장을 촉진하고, 심장운동을 느리게 한다. 일반적으로 신체에 강장제 역할을 하며, 방부제 성질과 근육, 혈관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파란색은 혈액 순환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균형과 조화의 색으로 신경흥분을 가라앉혀 준다.[26]

이와 같이 색체를 이용하여 관찰자가 이상향의 장소로부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그림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았다.

[도판24]【작품 25】 하늘에 산수를 그리다

[도판25]【작품 35】 하늘에서 놀기

앞서 색채를 통한 이상향의 느낌을 표현해보았다면 작품에 등장하는 도상들을 가지고 이상향을 표현해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 도상 안에 현대사회의 모습도 같이 담아보았다. 이는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며 더욱 큰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동물들과 식물들의 모습을 통해 이상적인 자연을 표현하여 이상향을 표현해 보았다. 하지만 단순히 이상세계의 모습만을 표현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안에 현실세계의 모습도 담아보는 시도를 해보았다. 이상향이라는 것이 현실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향은 항상 같이 공존하

26) 사단법인 한국색채학회, 앞의 책, p.77.

[도판26]【작품 31】 가치 있는 삶?

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현실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이상향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임으로 은연중에 현실의 모습이 이상향의 모습에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람자가 이상향을 표현한 작품을 감상할 때 이상적인 그림 안에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까지 발견하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더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도판26]에서 곰은 이상적 자연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 각자가 이상향을 상상할 때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의 모습은 같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이 자라면서 겪는 생활환경과 현재의 환경에 따라 같은 자연이어도 다른 모습으로 각자에게 다가가 서로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맨 앞의 운전을 하고 있는 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곰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 있는 펜더 곰은 희귀동물로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동물이다. 이처럼 같은 곰이지만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 생기는 계급과 같은 차이로 둘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모습은 다르게 나타게 된다.

이러한 환경적 차이가 만드는 계급과 같은 현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은연중에 발견한다면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그림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도판27]【작품 22】 하늘에서 날다

[도판27]에서도 이상적 자연의 모습 외에 다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I가 써져있는 가장 큰 비행기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숭이가 타고 있다. 그리고 Y, W에는 점점 더 희소성이 있는 원숭이들로 채워져 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원숭이의 차이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비행기에 써져있는 알파벳은 나를 뜻하고 있다. I는 내가 보는 나를, Y(You)는 한 사람의 상대방이 보는 나를, W(We)는 큰 집단 안의 나를 뜻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라는 집단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집단안의 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정의 할 때 단순히 그 사람만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러 가지 조형적 요소를 이용하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공감을 줄 수 있는 이상향을 표현해 보았다. 이는 작품에 나타는 이상향에서 관람자 현실의 모습 또한 찾음으로써 작품에 자신을 투영해보기를 바라고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본인의 작업과 관련된 이론들과 개념,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작업의 소재와 전개 과정 및 표현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본고를 작성하기 전까지 본인의 현재까지 이어온 작업들에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대사회의 심리적인 갈등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시기였고 두 번째 시기는 개인 공간 안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시기였다. 마지막 시기는 적극적인 태도로 현실에 떠나 새로운 공간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거쳐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를 진행해 보았다.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의 관계를 그린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창작동기와 표현발상을 언급하고 거기에서 발전된 개념을 정의하며 주제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완성된 연구작업들 속에 드러난 조형적 특성과 표현방법으로 분석하고 설명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인 개인들은 자신의 공간 안에서 최소한 행동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자연 담기’가 그러한 행동이다.

‘자연 담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 싣기’에 시도를 한다. ‘자연 싣기’의 행동은 이상향으로 가기위한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아직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곳에 무엇을 펼칠 것인지 이미 이동수단에 담아 놓고 있는 것이다.

‘떠나가 보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으로 떠나 현실의 불안한 공간에서 벗어남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공간으로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연과 일치가 되고 과거에 잃어버리면서 살아왔던 소중한 것을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예술가는 직접적으로 사회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람자에게 문제의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혹은 반대로 예술가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보여주기도 한다. 본인은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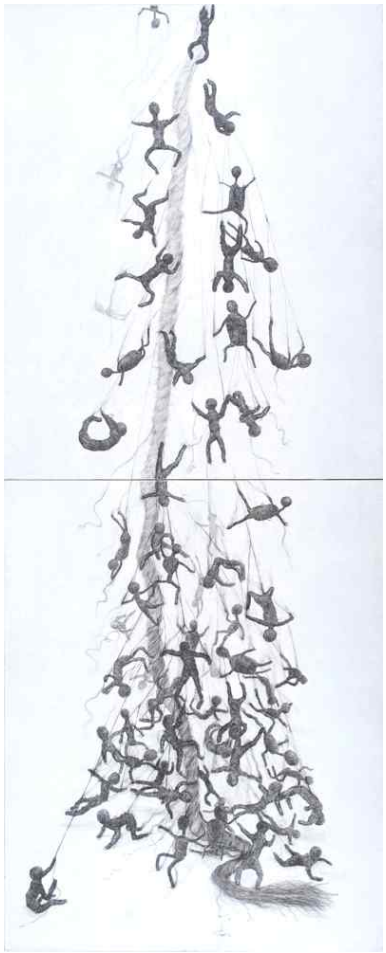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한 작업들은 살펴본다면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향의 모습을 한 공간이 대부분이다. 이는 관람자에게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기보다는 밝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해서 개인과 현대사회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하고 개성을 가지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언어로 무겁지는 않지만 쉽지만은 않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다.

- 작품도판 -

【작품 1】 벽을 만나다, 72 x 90cm, 장지에 채색, 2008

【작품 2】 Line, 162 x 130cm, 장지에 목탄·먹,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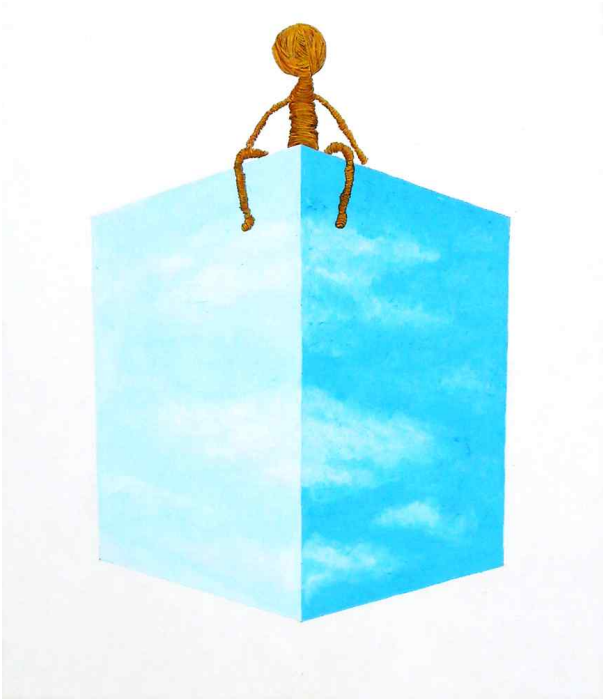


【작품 3】 Line Ⅱ, 130 x 324cm, 장지에 목탄·먹,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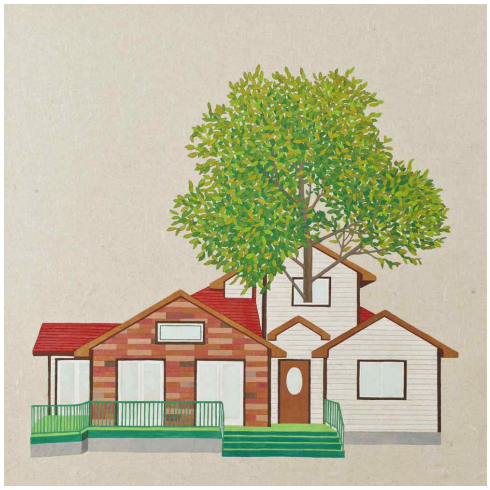
【작품 4】 흔적, 구 1.5m 광목 20m, 노끈·광목·먹, 2008

【작품 5】 창문 속 하늘, 117 x 91cm, 장지에 채색, 2009

【작품 6】 건물 속 하늘, 145 x 112cm, 장지에 채색,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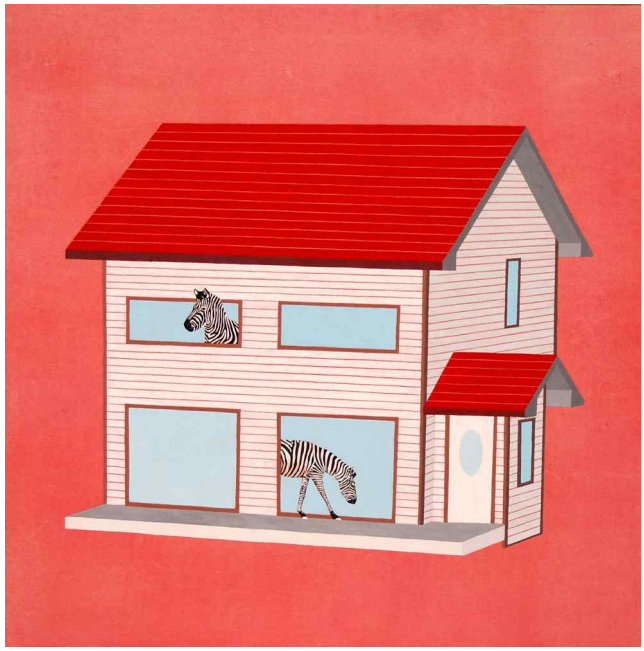


【작품 7】 하늘을 가두다, 45 x 53cm, 장지에 채색, 2009



【작품 8】 창문 속 자연Ⅰ,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9】 창문 속 자연Ⅱ,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10】 창문 속 자연Ⅲ,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11】 창문 속 얼룩말,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 12】 창문 속 기린,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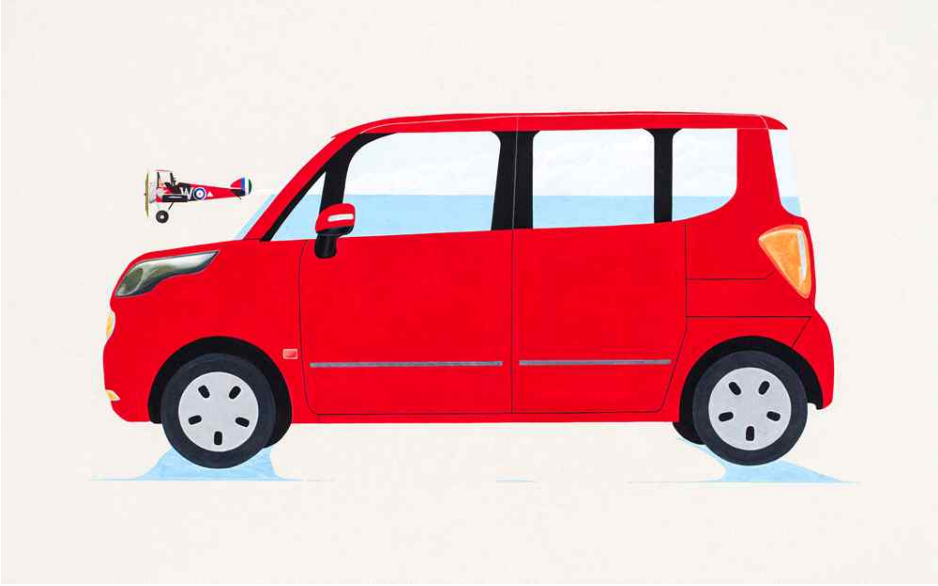
【작품 13】 집에서 핀 구름, 60 x 6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14】 자동차 속 기린, 60 x 6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 15】 빨간 차 속 기린, 50 x 5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16】 떠나는 기린,
20 x 2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17】 떠나는 펭귄,
20 x 20cm, 장지에 채색,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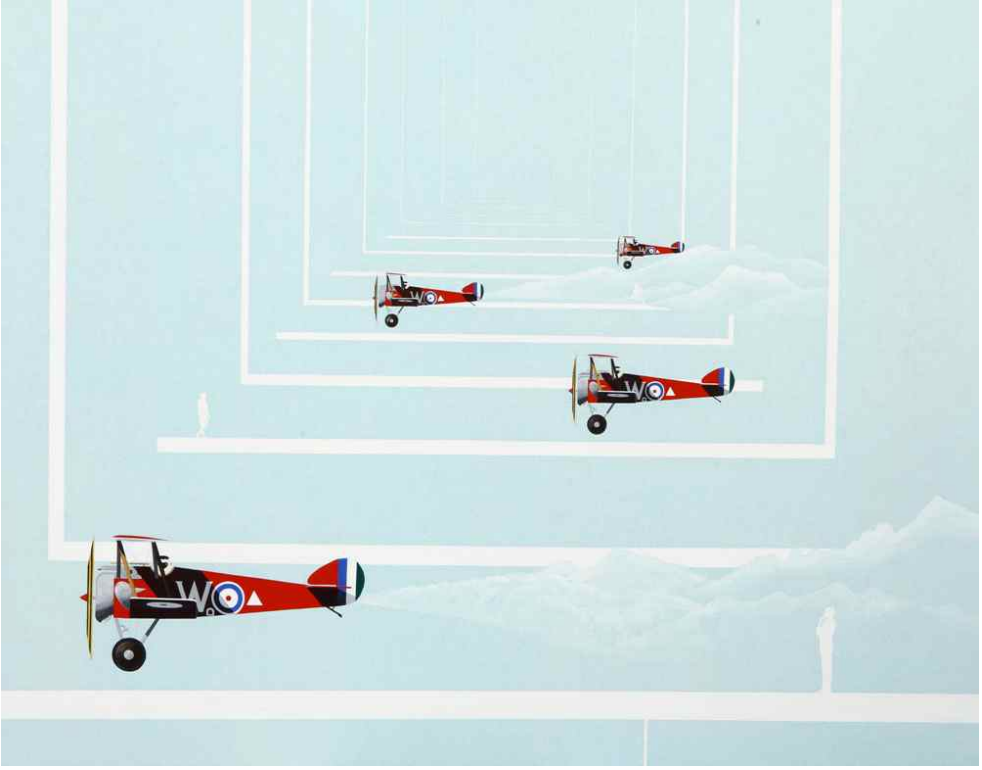
【작품 18】 떠남Ⅲ, 117 x 72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19】 떠남Ⅰ, 162 x 9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0】 떠남Ⅱ, 162 x 9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1】 가치 있는 삶?, 40 x 2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2】 하늘에서 날다, 145 x 112cm, 장지에 채색,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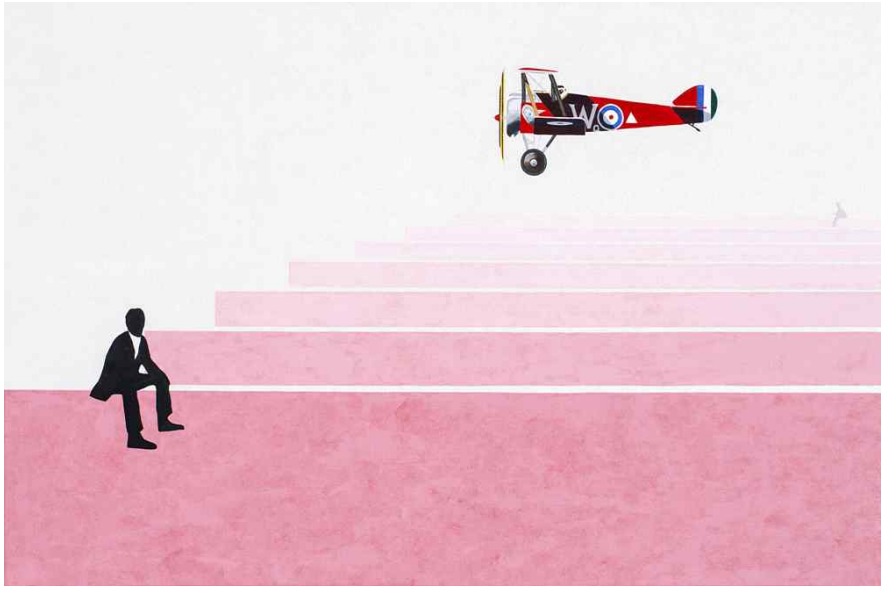


【작품 23】 하늘에 올라 생각하기, 162 x 13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4】 하늘에 그린 산수, 91 x 61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25】 하늘에 산수를 그리다, 60 x 4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6】 달로 향한 이들, 117 x 91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7】 앉아서 떠나보기, 60 x 4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8】 앉아서 보내기, 30 x 3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29】 누워서 떠나기, 30 x 3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30】 기억의 여행 떠나기, 91 x 61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31】 기억 여행, 40 x 2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32】 떠나보기, 40 x 40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33】 달로 향한 이들Ⅱ, 60 x 40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34】 떠나가 보기, 30 x 30cm, 장지에 채색, 2015

【작품 35】 하늘에서 놀기, 30 x 30cm, 장지에 채색, 2014

【작품 36】 산수에서 놀기, 40 x 40cm, 장지에 채색, 2015

참 고 문 헌

단행본

구본형, 『떠남과 만남』, 생각의 나무, 2000
국립중앙박물관,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그라픽네트, 2014
김훈철, 『웰빙마케팅』, 컴온북스, 2004
다비드 세르방-슈레베르,『치유: 우울증·불안·스트레스·화』(정미애 옮김), 문학세계사, 2004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아카넷, 2000
박기훈·박판현 역, 『노자 도덕경』, 홍문관, 2014
박선규, 『산수화와 그 정신』, 신원출판사, 1998
박승위,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한국인의 소외의식』,
영남대학교출판부, 1996
박영호, 『빛으로 쓴 얼의 노래 노자』, 두레출판사, 1998
서정화, 『都市問題槪說』, 문왕사, 1971
서복관, 『中國藝術精神』, 동문선, 1990
손세관,『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1972
송영배 외, 『인간과 자연 철학』, 현실사, 1998
심규호 역, 『도설천하 노자』, 시그마북스, 2010
안종수, 『동양의 자연관』, 한국학술정보, 2006
이강수, 『도가사상의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5
이무웅, 우영제, 『정보사회와 인간관계론』, 백산출판사, 1994
이연숙, 「힐링콘텐츠의 정의 및 개념」,「한국디자인 포럼」제 17호, 2007
임춘식, 『현대사회와 인간소외』,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1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一志社, 1991
지순임, 『예술과 자연』, 도서출판 미술문화, 1997
한국색채학회, 『色色가지세상』, 도서출판구제, 2001

허석, 『집』, 서울출판사, 1992
Charles Taylor, 『불안한사회』, 이학사, 2001

논문

김승범, 「전원주택에 나타난 한국현대도시인의 자연에 대한 욕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학위논문. 2003
이강희, 「닫힌 공간 속 인간들의 내면 심리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경수, 「도시 공간 속의 자연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주학,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꿈의 공간의 표현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장현지, 「내면적 소통으로서의 인간관계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Abstract

Investigating the Expression of Modernist’ s mental struggle through 'Depart-and-See'

-based on my Artworks-

Nam Jea-hyun
Department of Fine Art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a subject of interests by putting forward works of the researcher from 2008 to 2015. The process of restoration and reliefs of ‘metal struggles’ in urbanized modern society are presented with theoretical principles, representational characteristics and expressive methodologies in the Nature. And the following directions of prospective works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In this research, the urban environment inhibited by modern and self is investigated and impacts of the urban are

identified and analyzed. Thereupon, conditions and ways of which impact environment on the modern are outlined and expressed through formative approaches. Metal struggles in human beings living in the populated urban space are determined and efforts of the moderns escaping their environment are explored. The most crucial solution is the Nature. The researcher questions what the Nature is for modern people and from when the Nature has been regarded as central studies of the East. By allowing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Nature and placing the Nature in personalized space, the process of metal problems are theoretically clarified and solved. Through not only confining personal spac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but also escaping to modernist ideals from the reality by various vehicles, mental anxiety and solitude are relieved in diversely visualized bodies of works. And the results of representational characteristics and expressive methods of these attempts are presented and thoroughly described in this research. In consequence, the problem-solving and related demeanors are defined as 'Depart-and-See' and results of them are provided as a visual language.

Looking at the content of study in Chapter One, reasons of problems that modernists feel as living in the urban are laid out and researcher argues that solutions for the problems should be found in the Nature. In Chapter Two,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of the urban in operation, the processes of urban formation are subdivided and compared with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developmental achievements in the West, the East and in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because the urban expansion by industrialization was systematic and artificial in its characteristics, accordingly, people felt emotional desolation and

alienation in this environment. The modernists must have faced mental problems like solitude, anxiety, loss of self, and etc. These mental problems are defined as 'mental struggles' and conclusive research for these problems is notified here. First of all, 'mental struggles' of the Modern were visualized in the Chapter Three. And in sequence, passive attitudes and efforts made by the modernists to resolve these 'mental struggles' are classified with theoretical rationalization and representational expressions. In Chapter Four, processes of resolution through idealized Nature in 'mental struggle' are explained. These processes of problem-solving are given a definition of 'Depart-and-See.' And changing mental status in problem-solving by positive attitudes is examined in addition as it is representationally expressed in the work of researcher. Unraveled ideals in visual languages, 'Depart-and-See' creates a new spatial order. Moreover, the results of what could be accomplished by visiting the place of resolution is illustrated in the study. In Chapter Five, the attitude of modernists living in the urban towards the Nature is reflected. Beliefs that the researcher wishes to tell for the modernists are expressed again in visual language. And further works to be engaged in the near future are noted in the end.

Conclusively, in the timely currents of changing works, it is evident that the attitude towards modern societies has been disturbed in many different ways. And further shifts of researcher's beliefs are disclosed. Also, the researcher enables objective evalu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works on the basis of theoretical and academic grounds throughout this research. Upon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d develop prospective studies on the works of researcher by approving the exclusive subject

matter in distinctive perspectives on modern societies.

Keywords : Metal struggles, Documenting nature,
Putting nature, 'Depart-and-See' , To stay

Student Number : 2009-23305